

# 사역교체현상과 사건구조 미명세원리

김 경 학  
(수원대학교)

**Kim, Kyoung-Hark. (2002). Causative Alternation and the Semantic Structure. *Language Research* 48.1, 3-36**

This paper deals with dative verbs and argument structure alternations in terms of the Type Underspecified Hierarchical Lexicon and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Dative verbs and argument structure alternations can be found in the examples like *Mary gave a doll to the girl.* / *Mary gave the girl a doll.* The meanings of two sentenc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verbs like 'donate' can only be used as the dative construction (*Joe donated \$5 to the earthquake relief fund.* / \**Joe donated the earthquake relief fund \$5.*) In section 2, I introduce Pinker (1989)'s verb classification, each verb's lexicosemantic representation and lexical rules. And then I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his lexical rules. In section 3, I introduce the Koenig (1999)'s Type Underspecified Hierarchical Lexicon and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And then I argue that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with the lexical structure can be more efficient than the lexical rules. (The University of Suwon)

**Keywords:** resultatives, telicity, homomorphism, coextensive, event structures, simple event, complex event

## 1. 서 론

사역교체현상이란 다음 **break**와 같은 사역동사가 사역적인 타동사로도, 비사역적인 자동사로도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 (1) a. Mary broke the window.
- b. The window broke.

그러나 의미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모든 동사들이 사역적인 타동사와,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 (2) a. Mary cut the bread./\*The bread cut.  
 b. Joe jumped the horse past the barn./The horse jumped past the barn.  
 c. Joe took my son to school./\*My son took to school.

동사 **break**와 **cut**은 상태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또 **jump**와 **take**는 위치이동한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break**와 **jump**는 교체현상을 보여 사역적인 타동사와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다 쓰이지만, **cut**과 **take**는 사역교체를 하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역교체현상에 대하여 **Pinker (1989)**의 어휘 규칙 이론,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의 1항 분석 등을 살펴보고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의 복합 사건구조(**complex event structure**)와 미명세(**underspecification**) 원리를 보완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Pinker(1989)**의 사역화 현상에 대한 동사의 하위분류와 어휘구조 및 어휘규칙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의 자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문맥적 조건에 의해 사역교체를 설명하고자 한 1항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4장에서는 1항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이론의 복합사건구조와 미명세원리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Pinker (1989)의 사역동사분류 및 어휘규칙의 문제점

### 2.1. Pinker (1989)의 사역화에 대한 협의의 동사분류

**Pinker (1989)**의 어휘 의미론에 따르면 동사의 통사적 구조는 그 동사의 의미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즉 영어의 사역동사(**causative**) 및 비사역적인(**anticausative**) 자동사의 대략적인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sup>1)</sup>

- (3) a. John opened the door.  
 b. The door opened.

1) (3b)와 같이 비사역적인(**anticausative**) 자동사를 학자에 따라 비대격(**unaccusative**)동사, 또는 능격(**ergative**)동사, 기동(**inchoative**)동사라고 한다.

- (4) a. X(=agent) acts on Y(=patient), causing Y(=theme) to go to a location or state.  
 b. Y(=theme) goes to a location or state.

(3a)와 같은 사역동사 구문의 의미는 주어인 행위자(agent) X가 어떤 행위를 해서, 목적어인 피영향자(patient) Y가 영향을 받아 위치나 상태가 변하는 대상(theme)이 되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략적으로 (4a)와 같은 의미구조를 지닌다. 이때 중요한 것은 Y가 X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이면서, 동시에 위치나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점이다.<sup>2)</sup> 반면 (3b)와 같은 자동사 구문의 의미는 주어인 대상 Y가 위치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략적으로 (4b)와 같은 의미구조를 지닌다. 이때 (3a)의 통사구조는 (4a)의 의미구조에 의해 정해지는 데, 행위자 X는 주어로 실현되고, 피영향자이며 동시에 대상인 Y는 목적어로 실현된다. (3b)의 통사구조는 (4b)의 의미구조에 의해 정해지는데, 대상 Y는 주어로 실현된다.

한편, (3)의 동사 open처럼 두 가지 유형의 통사구조로 다 쓰이는 동사는 그 의미구조가 어휘규칙에 의해 바뀔 경우로 어휘적으로 다의적인 경우가 된다. 즉 어휘규칙에 의해 (4a)와 같은 사역동사의 의미구조에서 (4b)와 같은 자동사의 의미구조로 바뀔 경우이다. 이때 이와 같은 어휘규칙에는 방향성이 있다. 다음처럼 (4b)와 같은 자동사의 의미구조에서 (4a)와 같은 사역동사의 의미구조로 바뀌는 경우도 가능하다.

- (5) a. The batter walked (to the first base).  
 b. The pitcher walked the batter (to the first base).

이때 (5a)의 경우 타자가 선구안이 좋아 의도적으로 휘볼을 골라 1루로 걸어나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투수가 공을 잘못 던져 1루로 가게 된다. 즉 타자는 행

2) 어휘적 사역동사(lexical causative)구문과 우언적 사역동사(periphrastic causative)구문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i) a. John killed the bug.  
 b. John caused the bug to die.

- (ii) X acts, causing Y(=theme) to move or change

(ib)와 같은 우언적 사역동사구문은 (ia)와 같은 어휘적 사역동사구문과 달리 행위자 John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키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키쳐, the bug가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된다. 즉 (ii)처럼 the bug는 피영향자는 아니고, 단지 장소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대상일 뿐이다.

위자라기보다는 대상이다. 따라서 사역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가 되어 (5b)와 같은 사역동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위자 주어로만 해석되는 경우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지 못한다.

- (6) a. The batter singled/doubled/homered.  
 b. \*The pitcher singled/doubled/homered the batter.
- (7) a. The baby vomited/ate/slept/cried.  
 b. \*The mother vomited/ate/slept/cried the baby.

그러나 (4)와 같은 광의의 의미구조규칙은 가능성(predictability)을 나타내는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지,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은 되지 못한다. 즉 다음과 같이 자동사에서의 행위자가 사역적인 타동사에서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가 되어 장소나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8) a. John drove./John cheered up.  
 b. I drove John./I cheered up John.

(8a)의 주어 John은 스스로 운전하거나 기분을 낼 수 있다. 즉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이다.<sup>3)</sup> 그런데도 불구하고 (8b)와 같이 사역동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Pinker (1989: 130-134)는 사역교체가 가능한 동사로 더 자세하게 협의의 규칙(narrow-range rule)으로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다음 (9)의 shrink류의 동사는 물리적 상태가 외형적인 변화(extrinsic change of physical state)를 일으키는 상태변화 동사(change-of-state verbs)로 open, close, break, melt, shrink, shatter 등이 포함된다.

- (9) a. The plastic shrank.  
 b. John shrank the plastic.

이들 동사의 특징은 (9a)와 같은 자동사의 경우 상태변화가 외적인 행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다음 (10)의 slide류의 동사는 특정방법으로 장소이동을 함의하는 이동

3)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양태 동사(manner-of-motion verbs)로 float, roll, bounce 등이 있는데, 사역 교체가 가능하다.

- (10) a. The log slid.  
b. John slid the log.

이때 (10a)와 같은 자동사 주어는 의도적인(voluntary) 행위자라기보다는 비의도적인 대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다음 (11)의 trot류의 동사는 특정 방법으로 장소 이동하는 행위동사로 walk, gallop, race, run, jump 등이 있는데 사역교체가 가능하다.

- (11) a. The horse trotted past the barn.  
b. John trotted the horse past the barn.

주어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행위동사이지만,<sup>4)</sup> (11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경우 강요하거나 격려하여 이동시키는 간접사역의 의미로 바뀐다. 즉 말을 타고 같이 이동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한편 다음처럼 교통수단을 도구로 사용하여 장소이동을 하는 drive, fly, cycle, ferry, boat, sail, motor류의 동사도 사역교체가 가능한 동사인데, (12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가 쓰일 경우 태우고 동반 이동하는 경우가 된다.

- (12) a. She drove to New York.  
b. Captain Mars drove her to New York.

한편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는 동사의 하위분류로 다음과 같이 칼, 도끼, 가위, 톱, 손톱 등의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여 접촉(contact)이 된 후,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cut, chip, clip, saw, scratch 등의 동사가 있다. 이들 동사는 다음 (13)처럼 중간동사로는 쓰여도, 비대격의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4) 자동사로 쓰인 jump, hop, run 등의 이동양태동사가 eat, drink, sing, smile처럼 단순히 행위 동사로 해석되어, 주어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행위자 주어인 경우에는 다음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i) a. Sally jumped.  
b. \*I jumped Sally.

- (13) a. Margaret cut the bread.  
 b. The bread cuts easily.  
 c. \*The bread cut.

또 어휘적으로 특정방향으로 이동이 함의되어 있는 이동동사(inherently directed motion verbs) go, come, rise, fall, ascend, descend, leave, enter, arrive 등은 다음 (14)처럼 사역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또 특정방향으로 이동이 함의되어 있는 사역적인 타동사 take, bring, raise도 다음 (15)처럼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 (14) a. My son went to school./\*I went my son to school.  
 b. The flag rose./\*I rose the flag.
- (15) a. I took my son to school./\*My son took to school.  
 b. I brought my sister home./\*My sister brought home.

다음과 같이 create, destroy, murder, appear, emerge, evolve, disappear, expire, vanish 등과 같은 존재변화동사(change-of-existence-verb)도 사역교체를 하지 않는 동사이다.

- (16) a. A dove appeared from the magician's sleeve.  
 b. \*The Magician appeared a dove from his sleeve.

협의의 동사분류에 의해 사역교체현상을 보여 사역동사 및 자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와 교체하지 않고 한 가지 유형으로만 쓰이는 동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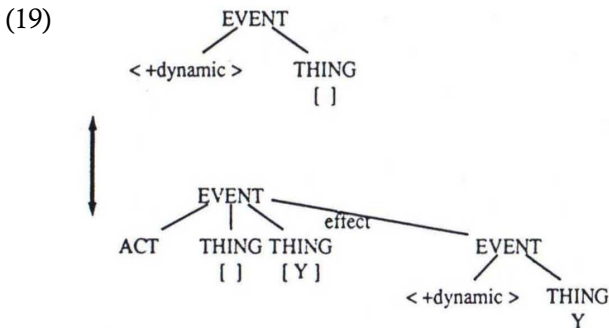
- (17) a. shrink류의 상태변화 동사: open, close, break, melt, shatter  
 b. slide류의 이동양태 동사: float, roll, bounce  
 c. trot류의 이동행위동사: walk, gallop, race, run, jump 등  
 d. drive류의 교통수단 이동동사: fly, cycle, ferry, boat, sail
- (18) a. cut류의 접촉에 의한 상태변화동사: chip, clip, saw, scratch  
 b. sleep류의 순수행위동사: eat, cry, smile, play  
 c. go류의 본향적 이동동사: come, rise, fall, ascend, descend, leave, arrive

- d. take류의 사역적인 이동동사: brink, raise
- e. create류의 존재변화동사: destroy, murder, appear, emerge,  
evolve, disappear, expire, vanish

(17)은 사역교체현상을 보여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들이고, (18)은 교체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유형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다.

## 2.2. 어휘의미표시 및 어휘규칙의 문제점

Pinker (1989: 223)는 (4)와 같은 광의의 어휘규칙을 보다 세밀하게 다음과 같이 어휘의미표시(lexicosemantic representation)를 하여 사역동사와 자동사의 교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19) 전반부의 사건구조는 자동사의 의미표시이고, 후반부는 이 자동사의 사건구조를 결과(effect)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사역적인 사건구조의 의미표시이다. 이때 <+dynamic>은 BE나 HAVE로 표시되는 상태동사가 아니고, GO로 표시되는 상태 및 장소 변화동사라는 제약이다. 따라서 협의의 동사분류에서 첫 번째 부류인 break, melt, burn 등과 같은 상태변화동사나, 두 번째 부류인 roll, slide, float 등의 이동양태동사의 교체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cut, chip, clip, saw, scratch 등과 같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접촉이 된 후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동사가 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20) a. John broke the door with the hammer./The door broke.
- b. John cut the bread with the knife./\*The bread cut./

### The bread cuts eas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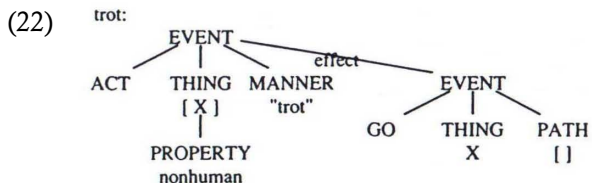
순수 상태변화동사로 분류한 **break**도 실제로는 예문 (20a)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접촉하고 난 후 상태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단 자동사로 쓰인 경우 상태변화가 행위자나 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경우이다. 그러나 (20b)와 같은 **cut**류의 동사는 반드시 상태변화가 행위자나 도구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고, 자동사로 쓰일 경우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간동사 구문으로만 쓰인다. 이 같은 제약을 (19)와 같은 어휘의미표시규칙에 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개별어휘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다. 또 **go, come, rise, fall, ascend, descend, leave, exit, enter** 등과 같이 본래 방향이 정해진 본향적 이동동사들(*inherently directed motion verbs*)이 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sup>5)</sup>

한편, **jog, eat, laugh**와 같은 행위동사인 비능격동사(*unergative*)가 사역동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위의 <+dynamic> 제약만으로는 ACT도 포함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Pinker (1989: 225)는 언어마다 사역화에 대한 양상이 다르고, 영어의 경우도 모든 비대격동사에 대해 다 사역적인 타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동사인 모든 비능격동사가 다 사역동사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협의 동사분류로 보충한다고 설명한다. 즉 협의의 동사분류의 세 번째 부류의 동사로 **trot, race, gallop** 등의 부류와, **drive, sail, fly** 등의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사역화가 가능한 비능격 행위동사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의미표시로 설명한다.

- (21) a. The horse trotted down the path.  
b. She trotted the horse down the path.

5) Pinker (1989: 224)는 이들 동사는 이동양태동사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의미표시에 이동경로에 대해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rise, ascend**에 대해서는 “up”을 **fall, descend**에 대해서는 “down”을 표시해 주어야 하고, **arrive**는 “to PLACE”를, **leave**는 “from PLACE”를, **exit**는 “from in THING”을, **enter**는 “to in THING”을 **come**은 “to HERE”를 **go**는 “to THERE”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이들 동사는 이동의 방법(*manner*)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세한 차이점을 어휘규칙의 제약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규칙에 대한 제약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들 개별동사들의 의미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동사로 쓰일 경우 의지가 있는 인간처럼 행위자 주어가 가능하지만,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22)의 의미표시에서 보듯, 많은 제약이 있다. 즉 주어 X가 말(horse)처럼 비의지적인 비인간(nonhuman)이라는 제약, 이동양태(manner)에 대한 제약, 결과사건에서 경로(path)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다음 (23)처럼 사람인 경우도 가능하고, 앞의 예문 (5)처럼 경로가 표시되지 않고 문맥속에서 알 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어휘규칙의 제약으로 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른다.

- (23) a. He marched *the soldiers* across the field.  
 b. She walked *her baby* across the room.

- (5) a. The batter walked (to the first base).  
 b. The pitcher walked the batter (to the first base).

또 (21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 간접사역이 되어 말을 타고 같이 이동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일관성 있게 사역적인 타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Pinker (1989)는 이에 대한 의미표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다음 (24)의 drive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동사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24) a. Sue drove to Chicago.  
 b. Bob drove Sue to Chicago.

(24a)처럼 자동사로 쓰일 경우 본인 스스로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정된 경로로 이동하지만, 타동사로 쓰일 경우 타동사의 주어가 운전하여 동반 이동하는 경우가 된다. 이를 이동방법에 대한 수단(means)이라는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처럼 동사마다 이에 대한 제약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휘규칙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 (25) a. Sue flew to Chicago.  
b. Bob flew Sue to Chicago.

(25a)의 경우 (24a)의 *drive*와 달리 주어인 *Sue*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여 시카고로 간 경우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간 경우이다. 따라서 (24)와는 다른 수단에 대한 제약으로 표시해야 된다. 즉 동사마다 제약이 다르므로 일관성 있게 어휘규칙에 대한 제약으로 표시하기는 어렵고, 개개 동사어휘의 사건구조에 대한 제약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Pinker* (1989)의 협의의 동사분류와 어휘규칙은 교체를 보이는 동사와 교체하지 않는 동사를 구별하여, 교체를 보이는 동사에 대해 사역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자동사의 의미적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점에서는 설명력이 높다. 그러나 교체를 보이는 동사와 보이지 않는 동사를 어휘규칙에 대한 제약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개별동사마다 그 제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휘규칙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휘규칙의 어휘의미표시에서 모든 의미적, 화용적 요소를 다 명시적으로 의미구조에 대한 제약으로 기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규칙성과 보편성을 포착하기 위해 설정한 어휘규칙으로써는 비효율적이다. 또 어휘규칙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어휘부에서는 별도로 *drive*<sub>1</sub>, *drive*<sub>2</sub>와 같이 나열식으로 적어 놓아야 하므로 비경제적이며, 나아가 한 어휘가 갖고 있는 다의적인 두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을 어휘의 의미구조 속에 나타낼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 3. Rappaport and Levin (2011)의 1항 분석이론과 문맥조건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도 동사에 따라 사역교체가 일어나는 동사와 사역교체를 하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사건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 내재적 원인에 의한(*internally caused*) 사건동사와 외재적 원인에 의한(*externally caused*) 사건동사로 구별하였다. 내재적 원인의 사건동사는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이지 않고, 자동사로만 쓰이고, 외재적 원인의 사건동사의 경우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인다. 이때 *break*, *open* 등처럼 외재적 원인인지 내재적 원인인지 원인이 어휘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원인 미명세(*underspecified cause*) 동사는 사역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에 와서는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의 의미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문맥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즉 가능한 한 동사의 어휘적 의미특성의 부담을 줄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줄이며, 역할을 나누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 사건구조,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특히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에서 Reinhart의 어휘규칙처럼 2항 술어인 타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도출하는 2항(술어)분석(dyadic analysis)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1항 술어인 자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사역교체를 설명하는 1항(술어)분석(monadic analysis)을 주장하였다.

### 3.1. Reinhart의 어휘규칙에 의한 비사역화 과정과 문제점

사역교체 현상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사역적인 타동사와 비사역적인 자동사 중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하고, 그 기본형에서 어휘규칙에 의해 다른 형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역적인 타동사를 기본형으로 하고, 이 기본형에서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도출하는 비사역화 과정을 가정한다. Reinhart (2002, to appear)도 사역적인 타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외재적 원인(causing change)을 [+c]란 어휘명세(lexical specification)로 다음처럼 표시해 주고 있다.

- (26) a. V ([+c] (=underspecified cause), [-c, -m] (=theme))  
 b. V<sub>Acc</sub> (θ[+c], θ<sub>j</sub>)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적인 원인인 외재적 논항은 행위자, 도구, 자연력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는 구체적으로 논항이 명시되지 않은 미명시 원인자 논항([+c]=underspecified cause)과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대상 논항([-c, -m]=theme), 두 개의 논항을 지닌 타동사를 기본으로 본다. 어휘항목에 V<sub>Acc</sub>(θ[+c], θ<sub>j</sub>)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대격(accusative)의 타동사 V의 논항은 미명시 원인자의 의미역 θ[+c]을 지닌 외재논항과 대상의 의미역 θ<sub>j</sub>을 지닌 내재논항으로 되어 있다는 2항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Reinhart에서는 비사역화(decausativization)란 어휘명세에서 외재적 원인인 미명시 원인자[+c] 논항을 제거하여 내재 원인화 하는 과정이다.<sup>6)</sup>

6) Reinhart (to appear)는 동사의 의미개념은 의미역구조(thematic structure)에 해당되며, 하나의 동사가 나타내는 유사한 여러 다양한 의미(형태)는 의미역 구조상에서 항가변화의 과정으로 도출된다는 다음과 같은 어휘부 통일성 원리(Lexicon Uniformity Principle)를 제시하고 있다.

(i) Lexicon Uniformity Principle: Each verb-concept corresponds to one thematic

## (27) Decausativization: Reduction of a [+c] role

$$V_{Acc}(\theta[+c], \theta_j) \rightarrow V(\theta_j) \text{ (Reinhart to appear: 27, (52))}$$

이와 같은 2항 분석방법은 사역적인 타동사를 기본으로 보고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6-10)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c]라는 어휘명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맥적인 요인이 있다.

## (28) a. The waiter cleared the counter.

b. \*The counter cleared.

(28)의 동사 **clear**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도구, 자연의 힘, 심지어 사건(event) 자체가 외재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사로 사역교체가 가능하여 타동사로도 자동사로도 쓰인다. 그러나 행위자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28b)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이지 못한다. 이런 비사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역적인 외재적 원인자 [+c]만으로는 안 되고, (28a)의 경우 외재적 원인자로 행위자만을 나타내는 [+c, +m]란 자질을 사용하여 어휘명세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동사 **clear**는 [+c]로, (28)의 동사 **clear**는 [+c, +m]란 어휘명세를 갖는 동사가 되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다의어 동사로 보아야 한다. 즉 테이블 등을 치우는 의미인 (28)의 동사 **clear**는 외재적 원인자로 오직 행위자만을 지닌 동사로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문맥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인 원인도 가능하다.

(29) The wind was enormous. There was a huge dinner table set-up, and *the wind* cleared the entire table onto the floor and blew over chairs.

테이블을 반드시 행위자인 사람만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테이블이 치워지는 경우도 가능하다. 즉 (28b)에서 비사역화가 안 되는 것을 [+c, +m]란 어휘명세로 정당화 할 수 없게 된다. 또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일 때는 행위자를 내포해서는 안 되고,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태

---

structure. That is, the various thematic forms of a given verb are derived by arity (valence changing) operations from one thematic structure. (Reinhart to appear: 5, (5))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보아야 했다. 그러나 다음처럼 문맥상 행위자를 내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30) a. *My son wanted to annoy me, so he threw my precious vase against the wall and it broke.*  
 b. *Sally kept tugging on the door until it finally opened.*

(30a)에서 꽃병이 깨진 것은 내 아들이 벽에 던졌기 때문이고, (30b)에서 문이 열린 것은 Sally가 잡아 당겼기 때문이다. 즉 문맥상 행위자를 내포하고 있다. Reinhart식으로 어휘적으로 사역적인 외재적 원인자 [+c]의 어휘명세를 제거하여 비사역화하는 어휘규칙으로는 이러한 문맥적인 문제점을 설명할 수 없다. 동사의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이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역적인 타동사에서 [+c]의 어휘명세를 제거하여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변하는 어휘적인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역화 과정이 있다.

- (31) a. *The fruit trees blossomed.*  
 b. *\*The farmer/\*the new fertilizer blossomed the fruit trees.*
- (32) a. *Early summer heat blossomed fruit trees across the valley.*  
 b. *Salt air and other common pollutants can decay prints.*  
 c. *Raindrops selectively erode clay particles.*

(31)의 동사 blossom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31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Wright (2001, 2002) 등이 (32)처럼 사역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초여름 더위, 소금기와 오염물, 빗방울 등의 자연의 힘이나 환경 등이 주어로 나와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들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해서 직접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사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간접사역이라고는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사역적인 자동사에서 사역적 타동사를 도출하는 사역화(causativization) 과정도 필요하게 된다.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은 잠정적으로 자연의 힘과 도구를 나타내는 [+c, -m]이란 어휘명세를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어휘명세를 가정하여 사역화를 설명한다 하여도 비사역화에 있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의어로 분석해야 되는 문제 및 다음처럼 처소 주어의 비사역적인 타동사로 변하는 현상을 포함한 문맥적인 보충설명이 필요

하다.

(33) *The shrub blooms white flowers in the summer.*

세 번째 [+c]와 같은 어휘명세만을 사용하는 어휘적 과정으로는 주어-목적어의 서로 상호 의존적인 문맥적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34) a. *That [receiving compliments] made me feel very good and has skyrocketed my confidence level.*

b. *Solving this issue skyrocketed my personal growth, for it also changed my view towards life, work, success.*

(34)의 동사 *skyrocket*의 주어는 행위자도, 도구도, 자연의 힘도 아닌 사건(event) 또는 상태(state)이다. 주어가 환경적 요인과 비슷하게 상황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원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상태변화 동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즉 사건 및 상태 등의 상황적 여건 때문에 사람의 자신감(confidence), 성장(growth), 성공(success) 등이 급속도로 신장되는 간접적 사역의 의미이다. 그러나 다음처럼 행위자 주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5) a. *When he heard it was for a Catholic church he skyrocketed the price to \$6000.*

b. *Well, I skyrocketed the volume until my ears about blew out.*

(35)의 경우 행위자인 사람이 직접 가격, 소리의 세기 등을 급속도로 높이는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이다. 이처럼 자동사에서 사역화가 되어 타동사로 쓰일 때에도 간접적 사역이나 직접적 사역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다의어 동사로 분석해야만 한다. (35)처럼 가격, 소리크기 등은 행위자인 사람이 직접 바꿀 수가 있지만, (34)처럼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자기 확신, 신념 등은 행위자인 사람이 직접 바꾸는 직접사역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변하는 간접사역의 경우이다. 이처럼 사역화의 문제는 Reinhart식으로 어휘적으로 사역적인 외재적 원인자 [+c]의 어휘명세를 제거하면 단순히 비사역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역적인 주어 논항과 대상인 목적어 논항사이의 관계인 문맥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3.2. 사역화 과정과 문맥적인 조건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10-15)은 사역교체를 하는 모든 상태 변화 동사는 어휘적으로 상태변화 하는 대상논항은 선택하지만, 행위자, 도구, 자연의 힘, 상태, 사건 등의 외재논항은 동사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문맥적으로 선택 되는 것으로 본다. 즉 2항 술어(dyadic)로 보지 않고, 내재논항인 대상논항 하나만 선택하는 1항 술어(monadic)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역교체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사역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본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맥적인 조건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문을 다시 보자.

(36) a. The fruit trees blossomed.

b. \*The farmer/the new fertilizer blossomed the fruit trees.

c. *Early summer heat* blossomed fruit trees across the valley.

동사 blossom, decay, erode, wither, rot, rust, wilt 등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36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36c)처럼 초여름 더위 등의 자연의 힘이나 환경적 요인이 주어로 나와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해서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사역동사와는 다르다. 즉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중간에 작용한다 할지라도 개체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상태변화가 일어나거나 촉진되는 방법이다.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15-6)은 이를 직접 원인 조건(Direct Causation Condition)이라 하여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37) a. The Direct Causation Condition: A single argument root may be expressed in a sentence with a transitive verb if the subject represents a direct cause of the eventuality expressed by the root and its argument.

b. Direct causation is present between the causer and the final causee in a causal chain (1) if there are no intermediate entities at the same level of granularity as either the initial causer or final causee, or (2) if any intermediate entities that are present can be construed as an enabling condition

rather than an intervening causer. (Wolff 2003: 5)

(37a)는 1항 술어의 근원적인 상태변화동사는 근원인 동사와 그 내재 논항인 대상 논항이 나타내는 상태변화의 사건에서 외재적 논항이 직접원인이 되어 주어로 표현될 때 타동사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즉 1항 술어의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문맥적 조건에 따라 외재논항이 직접원인이 될 때에는 사역적인 타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역화 과정을 가정하고 있다. (37b)는 사역자(causer)와 최종 피사역자(final causee)사이 (1)중간에 작용하는 중간 매체(intermediate entities)가 없거나, (2)중간 매체가 있다고 해도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작용할 때 직접원인이 성립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36a)의 비사역적 자동사는 중간에 작용하는 중간 매체가 없는 (37b-1)의 조건에 해당된다. (36c)의 사역적인 타동사는 초여름 더위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중간 매체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37b-2)의 조건에 해당된다. (36b)는 꽃이 만발하는 상태변화의 사건에 행위자인 the farmer나, 행위자가 사용하는 도구 the new fertilizer가 중간매체로 작용하여 직접원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sup>7)</sup>

가치, 척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상태변화동사(verbs of calibratable change of state)의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 (38) a. When he heard it was for a Catholic church *he* skyrocketed *the price* to \$6000.  
 b. *Solving this issue* skyrocketed my personal growth, for it also changed my view towards life, work, success.  
 c. Instead, Henderson skyrocketed his career by sinking a choke in the third.  
 d. \*My mother skyrocketed my personal growth.

(38a)처럼 가격, 수량, 가치, 척도 등을 중간에 사람이 작용하여 변화시킬 수는 있

7) Wright (2001: 163)가 제시한 다음 경우는 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역화가 가능하다.

- (i) a. *The scientist* germinated the seeds.  
 b. *The wine-maker* fermented the grapes.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17-8)은 위 예문은 행위자가 실험실, 공장, 그와 유사한 환경 하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를 실험하는 특수한 경우로 예외라고 설명한다. 즉 내재적 원인으로 씨앗이나 포도의 발아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실험 등 특수한 경우로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이다.



다. 그러나 (38b)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내적인 개인적 성장, 자신감 등은 그 내적인 본질적 요인 때문에 직접 변화는 것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는 사역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38b)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중간에 행위자인 사람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성장은 본인의 내적인 본질적 자질에 의해 직접 성장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 사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중간매체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38c)처럼 자신의 경력을 자신 스스로 신장시킬 수는 있다. 이 경우 주어진 Henderson은 자신의 경력을 신장시키는 외재적인 원인으로서의 행위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간매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즉 “Sinking a choke hold in the third skyrocketed Henderson’s career.”의 의미이다. 그러나 (38d)처럼 외재적 원인인 행위자로서 어머니가 직접 다른 사람인 아들을 성장시키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즉 사역교체를 하는 skyrocket 등의 척도상태변화동사를 대상논항 하나만 선택하는 1항 술어로 보고, 동사 skyrocket과 동사가 어휘적으로 선택한 대상 논항이 (38a)의 가격이나, (38b)의 개인적 성장이나에 따라 이들이 나타내는 상태변화의 직접원인이 문맥적으로 무엇이나를 가려 외재논항을 주어로 선택하는 사역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를 다의어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소리 방출동사의 경우이다.

- (39) a. *The old car rattled.*/\*The bad driver rattled the old car.  
 b. *The windows rattled.*/The wind rattled the windows.  
 c. *They are a gregarious lot —talkative, partial to picnicking on candy and rattling paper in time with the music.*

이들 동사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상태변화동사이기 때문에 (39a)처럼 행위자 주어에 의한 사역적인 타동사로는 쓰이지 못하고, (39b)처럼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아 덜커덩 거리는 소리를 내는 간접적인 사역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39c)처럼 행위자에 의해 사역적으로 소리를 내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때 행위자 주어진 (39c)의 경우 소리를 내는 개체(sound emitter)인 종이, 컵 등은 (39a, b)의 오래된 자동차, 차 주전자 등과 달리,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이나 컵 등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에 더 가깝다. 즉 자기 자신의 내재적인 본질적 요인에 의해 직접 변화는 직접원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대상일 경우 (39b)처럼 자연의 힘과

같은 요인에 의한 사역화는 가능해도, (39a)처럼 행위자에 의한 사역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Reinhart (2002, to appear)식의 어휘명세와 비사역화의 어휘규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내재적 원인에 의해 자동사로만 쓰이는 (39a, b)와 외재적 행위자에 의해 사역적인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39c)의 경우, 같은 동사라도 서로 의미가 다른 다의어로 분석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때 소리를 내는 개체인 대상 논항 하나만 어휘적으로 선택하는 1항 술어로 보면 (37)의 직접원인 조건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오래된 자동차, 창문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 사역자와 최종 피사역자 사이에 중간에 작용하는 중간 매체가 없을 때 직접원인이 성립한다는 (37b-1)의 조건에 따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중간 매체가 있다고 해도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작용할 때 직접원인이 성립한다는 (37b-2)의 조건에 따라 타동사를 설명할 수 있다. (39c)의 경우 기계, 종이, 컵 등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변화의 사건에 외재논항으로 행위자가 직접원인의 역할을 하므로 직접원인 조건 (37a)에 따라 사역적인 타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를 다의어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일 경우는 외재적 원인으로 사람과 같은 행위자가 있다고 해도 다음처럼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sup>8)</sup>

- (40) Getting ready to dine I grabbed the chair, pulled it out, sat down and then *the chair broke* into kindling while I fell on my hind end.

행위자가 의자를 끄집어내어 앉았을 때 의자가 부서진 경우이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부순 경우는 아니다. 의자가 이미 부서질 내적요인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앉자마자 부서진 경우이므로,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인다. 이를 다음과 같은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한다.

- (41) **The Proper Containment Condition:** When a change of state is

8) McCawley (1978: 246)는 다음 예문에서 (ib)가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한다.

- (i) a. The door of Henry's lunchroom opened and two men came in.  
b. The door of Henry's lunchroom opened and two men went in.

(ia)는 안에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온 경우로 안에 있던 목격자가 문을 연 사람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ib)는 안에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간 경우로 밖에 있던 목격자가 문을 연 사람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open 등의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도 목격자가 문을 여는 사람을 목격한 상황이라면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properly contained within a causing act, the argument representing that act must be expressed in the same clause as the verb describing the change of state.

사역적인 행위 속에 상태변화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동사가 묘사하는 상태변화와 같은 절속에 그 행위를 한 논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sup>9)</sup> 따라서 Reinhart에게 문제가 되었던 다음 문장도 설명할 수 있다.

- (42) a. My son wanted to annoy me, so he threw my precious vase against the wall and it broke.  
 b. Sally kept tugging on the door until it finally opened.

아들이 꽃병을 벽에 던져 꽃병이 깨진 경우이고, Sally가 문을 잡아 당겨 문이 열린 경우로, 상태변화의 사건 속에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42a)에서 행위자인 내 아들은 나를 괴롭히려 한 것으로, 내가 소중히 하는 꽃병을 벽에 던진 것이다. 꽃병을 깨뜨리려고 한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단지 결과적으로 꽃병이 깨진 경우이다. (42b)에서는 행위자 Sally는 문을 잡아당긴 것이지, 문을 열려고 한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장난으로 한번 잡아당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잡아당겨도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다. 단지 결과적으로 문이 열린 경우이다. 이처럼 사역교체를 하는 모든 동사를 1항 술어인 자동사를 기본형으로 보고, 문맥적인 제약인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을 합하여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면, 다의어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를 최소로 줄이고 사역교체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은 주장한다.

9) 이런 점에서 Horvath and Siloni (to appear 28, (48))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인지원칙(cognitive principle)과 맥을 같이 한다.

(i) Conceptualization of eventualities cannot disregard participants (roles) whose mental state is relevant to the eventuality.

사건을 개념화할 때 참여자의 정신적 상태가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참여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4. 사건구조 미명세원리

### 4.1. 1항 술어 분석의 문제점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 24)은 다음 (42)처럼 상태변화의 원인이 행위자 등 분명히 외재적인 원인으로 의미적으로 정해진 *assassinate*, *destroy* 등의 동사는 2개의 논항을 택하는 2항 술어로 타동사로 쓰이는 것이 어휘적으로 정해진 동사로 보고 있다.

- (42) a. John(\*The avalanche/\*The bomb) *assassinated* JFK.  
       ↔ \*JFK *assassinated*.  
       b. They(The avalanche/The bomb) *destroyed* several houses.  
       ↔ \*Several houses *destroyed*.

(42a)의 동사 *assassinate*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행위자가 행위를 하여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적인 타동사로 의도적인 행위자 논항이 주어로 나오는 타동사로만 쓰이지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42b)의 동사 *destroy*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같은 자연의 힘(*natural force*), 폭탄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등이 외재적 원인(*externally caused*)이 되어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동사로 외재적 원인에 해당하는 논항이 주어로 나오는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인다. 또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42a)와 같은 암살 사건에는 반드시 암살범이 연관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살범인 행위자가 동사가 묘사하는 사건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42b)와 같은 가옥이 파산되는 사건에는 행위자나, 산사태, 폭탄 등의 외재적 원인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역교체를 하는 모든 상태변화동사는 어휘적(의미적)으로 상태변화의 대상 논항 하나만을 택하는 1항 술어의 자동사로 보고 있다.

- (43) a. The sky cleared.  
       b. The strong wind/\*our prayers/\*the scientists cleared the sky.  
       (44) a. \*The counter cleared.  
       b. The waiter cleared the counter.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 **clear**를 대상 논항 하나만을 어휘적으로 선택하는 1항 술어로 보고 문맥적인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하면 (43)의 하늘이 맑아지는 경우와 (44)의 카운터 테이블 등을 치우는 경우 서로 의미가 다른 다의어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sup>10)</sup> 또 (43a)처럼 1항 술어인 자동사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항 술어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동사 **break**, **open**의 경우 비슷하게 다의어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1항 술어인 자동사를 기본 술어로 본다는 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45) a. He(The hammer/The storm) broke the window./The window broke.

b. He broke his promise./\*His promise broke.

(46) a. John(The key/The wind) opened the door./The door opened.

b. John opened the jar./\*The jar opened.

(45)의 동사 **break**는 사역교체를 하는 전형적인 상태변화동사인에도 목적어가 약속, 계약, 기록 등일 때는 (45b)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이때 약속, 계약, 기록 등은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 저절로 깨진다고 볼 수는 없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는 경우이므로 외재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즉 창문 등을 깨는 (45a)의 경우와는 의미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경우로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46)의 동사 **open**도 문을 여는 경우와 향아리 뚜껑을 여는 경우 의미가 다르다. (46a)의 문은 행위자나 열쇠, 바람 등이 외재적 원인이 작용하여 열 수 있다. 또 문자체가 열릴 수 있는 내재적 원인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저절로 열릴 수도 있다. 즉 원인 미명세인 경우로 사역교체가 가능하다. (46b)의 향아리는 향아리 자체가 열리는 경우가 아니라 향아리 뚜껑을 행위자인 사람이 여는 경우이다. 향아리 자체가 직접 상태변화의 내적원인을

10)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1)에서는 행위자 주어진 경우도 다음 (i)처럼 파편을 치우는 경우는 행위자인 사람이 치워야 되므로 비사역화가 되지 않아 (ib)처럼 자동사로 쓰일 수 없으나, (ii)처럼 사람일 경우 스스로 해산하여 경기장 밖 주변이 치워질 수 있으므로 비사역화되어 (iib)처럼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i) a. The police cleared the yard (of debris).  
b. \*The yard cleared.

(ii) a. The police cleared the area outside the stadium (of people).  
b. But after the match the area outside the stadium cleared quickly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재적 원인으로 행위자 등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은 상태변화의 대상 논항 하나만을 택하는 1항 술어로 보고, 깨는 대상이 창문이나 약속이나에 따라, 또 여는 대상이 문이나, 항아리 뚜껑이나에 따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과 같은 문맥적인 조건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은 다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43-44)의 동사 *clear*와 달리 (45-46)의 *break*, *open*은 같은 다의어로 분석해야 하는 문제점이지만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 때문이다. 즉 동사 *break*, *open*은 어휘적(의미적)으로 약속이나 항아리와 같은 대상 논항 하나만을 택할 수 없는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1항 술어를 기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다음 동사 *lengthen*, *empty*도 똑 같은 문제점이 있다.

- (47) a. *A low carb diet may lengthen your life.*  
 b. *Intensive care unit infections can lengthen hospital stays.*
- (48) a. *It was the failures of those floodwalls that emptied the lake into the rest of the city ...*  
 b. *Toyota Hilux conquers the volcano just before its eruption emptied the skies.*

동사 *lengthen*, *empty*는 (47-48)처럼 반드시 행위자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동사는 아니다. (47)처럼 다이어트를 통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집중 치료 때문에 병원 입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48)처럼 홍수막이의 실패로 호수물이 넘쳐 나왔고, 화산 폭발로 하늘이 치워질 수 있다. 즉 행위자 외에도 환경적인 원인이 주어로 나올 수 있다. 즉 내재적 원인에 의해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1항 술어의 자동사를 기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다음 (49b-50b)처럼 비사역화가 안 되어, 1항 술어의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49) a. *I lengthened the skirt and added some ric-rac.*  
 b. *\*The skirt lengthened.*
- (50) a. *I emptied the trash can.*  
 b. *\*The trash can emptied.*

(49)의 스커트 길이를 늘리는 의미의 동사 **lengthen**은 (47)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병원 입원 기간을 늘리는 의미와 다르다. 또 (50)의 쓰레기통을 치우는 의미의 동사 **empty**는 (48)의 호수의 물을 비워 흘러가게 하거나, 하늘을 비우는 의미와는 다르다. 따라서 **break**, **open**뿐만 아니라 동사 **lengthen**, **empty**도 의미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다의어로 취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따른다. 이 경우도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은 1항 술어인 자동사를 기본으로 보고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과 같은 문맥적 조건으로 설명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사 **lengthen**, **empty**는 어휘적(의미적)으로 스커트나 쓰레기통과 같은 대상 논항 하나만을 택할 수 없는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본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관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따른다.

또 내재적 원인의 사건동사로 사역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항 술어를 기본으로 보고 사역적인 타동사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다음의 동사를 다시 보자.

(51) a. The fruit trees blossomed.

b. \*The farmer/\*the new fertilizer blossomed the fruit trees.

c. Early summer heat blossomed fruit trees across the valley.

(52) a. The windows rattled./The wind rattled the windows.

b. The old car rattled./\*The bad driver rattled the old car.

(51)의 동사 **blossom**은 꽃, 나무, 과일 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재적 특성 때문에 직접 변화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상태변화의 동사로, (51a)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만 쓰이고, (51b)처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는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1c)처럼 초여름 더위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중간에 끼여 촉매역할을 할 경우 사역적인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 또 (52)의 동사 **rattle**과 같은 소리 방출 동사들도 덜거덜 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내적인 요인을 지닌 창문, 오래된 자동차가 주어로 나와 (52a)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만 쓰인다. 바람 등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간접적으로 작용할 경우 타동사로 쓰일 수 있으나, (52b)처럼 행위자 등의 외재적인 원인이 주어가 되는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는 것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원인조건에 따라 사역자와 최종 피사역자 사이에 중간에 작용하는 중간 매체가 없을 때 직접원인이 성립한다는 (37b-1)의 조건에 따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중간 매체가 있

다고 해도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작용할 때 직접원인이 성립한다는 (37b-2)의 조건에 따라 타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 꽃이 만발하거나 창문이나 오래된 자동차가 덜거덕 거리는 상태변화의 사건에 행위자나, 행위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중간매체로 작용하여 직접원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처럼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은 1항 술어를 기본으로 보고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과 같은 문맥적 조건으로 설명하면 Reinhart의 어휘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건동사로 상태변화의 내재적 원인을 지니고 있는 대상 논항 하나만을 어휘적으로 선택한다는 1항 술어 분석이 *break*, *open* 등의 동사보다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어휘의미와 함께 문맥적인 조건으로 설명한다고 하여도, 어째든 기본적인 1항 술어에서 사역적인 타동사인 2항 술어로 변하는 사역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즉 어휘의미는 상태변화의 대상 논항 하나만을 택하는 1항 술어라고 하여도 문맥적 의미가 어떻게 첨가되어 사역적인 타동사로 변하는지 형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Pinker의 어휘규칙이 문맥적이고 화용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여 의미를 도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듯이,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도 비형식적인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을 첨가하여 설명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식화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 4.2. 사건구조와 미명세 원리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의 이론은 비사역적인 자동사를 기본형으로 보고 사역적인 타동사로 교체해 쓰이는 경우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도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open*, *break* 등의 기본형을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직관과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어휘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역화 과정에 대한 부담을 앓고 있다. 따라서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5)의 원인 미명시(*cause unspecified*) 조건을 다음처럼 Pustejovsky (1995)의 미명세(*underspecification*) 사건구조로 수정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동사와 그에 따른 사건구조를 보자.

- (53) a. The children *dance*. ↔ \*I danced the children.  
(cf. I made the children dance.)



- b. John died. ↔ \*I died John. (cf. I made John die.)  
 c. John(\*The avalanche/\*The bomb) *assassinated* JFK.  
 ↔ \*JFK assassinated.  
 d. They(The avalanche/The bomb) *destroyed* several houses.  
 ↔ \*Several houses destroyed.

- (54) a. E1(e1): [ x ACT <sub><MANNER></sub> y]  
 b. E2(e2):[BECOME [x <sub><RES-STATE></sub>]]  
 c. Eo(e1+e2): [[ x ACT ] CAUSE [BECOME [y<sub><RES-STATE></sub>]]]

(53a)의 동사 *dance* 등의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s)는 양태동사로 (54a)와 같은 행위의 양태사건 e1으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1을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어휘적으로 의미가 단순사건구조의 양태동사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역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속에 반드시 행위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또 행위를 하는 직접원인은 바로 행위자의 의도에 있기 때문에 직접원인조건에 따라 행위자 주어의 비사역적인 행위동사로만 쓰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53b)의 동사 *die* 등은 상태변화동사로 어휘적으로 의미가 (54b)와 같은 상태변화의 사건 e2만으로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2를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어휘적으로 이미 상태변화의 단순사건구조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역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포함조건과 직접원인조건에 따라 비사역적인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53c)의 동사 *assassinate* 등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행위자가 행위를 하여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적인 타동사로 사역적인 행위사건 e1과 결과의 상태변화사건 e2로 구성된 (54c)의 복합사건구조 Eo(e1+e2)를 지닌 동사로 분석한다. 이때 동사 *assassinate*는 어휘적으로 의미가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로 고정되어 있고, 복합사건구조에 상태변화의 직접원인으로 의도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x=agent)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 (53d)의 동사 *destroy* 등은 *assassinate*처럼 어휘적으로 복합사건구조 Eo(e1+e2)로 고정된 사역동사이나, 행위자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같은 자연의 힘, 폭탄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등(x is not specified)이 상태변화의 직접적 원인이고, 사건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반드시 외재적 원인이 주어로 나오는 사역적인 타동사만 쓰인다.<sup>11)</sup>

11) 익명의 심사자는 *kill* 등의 동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바로 *kill*도 *destroy*와 마찬가지로 복합사건구조로 고정되어(자동사에 해당하는 *die*가 이미 존재해 있기

이때 직접원인조건은 *die* 등의 1항 술어뿐만 아니라 *assassinate*, *destroy* 등의 2항 술어를 포함한 모든 술어동사에서 어휘적 사역구문에서는 직접원인이 되는 논항이 주어로 표현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 (55) a. The Direct Causation Condition: Every root may be expressed in a lexical causative or a intransitive sentence if the subject represents a direct cause of the eventuality expressed by the root and its arguments.  
 b. Direct causation is present between the causer and the final causee in a causal chain (1) if there are no intermediate entities at the same level of granularity as either the initial causer or final causee, or (2) if any intermediate entities that are present can be construed as an enabling condition rather than an intervening causer.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의 직접원인조건 (37a)에서 사역교체동사를 1항 술어로 본다는 의미의 *single argument root* 대신 *every root*로 수정함으로써 1항 술어의 사역교체동사뿐 아니라 모든 동사를 다 포함하고자 한다. 또 타동사 구문을 의미하는 *in a sentence with a transitive verb* 대신 *in a lexical causative or a intransitive sentence*로 수정하여 모든 상태변화의 어휘적 사역구문과 행위동사 및 상태변화 구문을 다 포함하고자 한다. 또 *by the root and its argument* 대신 *by the root and its arguments*로 수정하여 반드시 1항 술어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수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직접원인조건은 내재논항이건 외재논항이건 행위사건이나 상태변화의 사건에 직접원인이 되는 논항이 주어로 표현된다는 의미가 된다. 즉 (53a-b)의 *dance*, *die* 뿐만 아니라 *assassinate*, *destroy*처럼 어휘적으로 원래부터 2항 술어인 사역적인 타동사를 다 포함하는 직접원인조건이 된다.

다음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의 사건구조와 미명세 원리를 살펴보자. Pustejovsky (1995: 188)는 이태리어 동사 *affondare*에 해당하는 영어 사역동사 *sink*의 논리적 다의성을 어휘규칙이나,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사건구조상의 중점값에 대한 미명세원리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때문에)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 (56) a. I nemici hanno affondato la nave. 'The enemy sank the boat.'  
 b. La nave è affondata. 'The boat sank.'

(56a)는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고, (56b)는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이처럼 하나의 동사가 둘 이상의 통사구조로 쓰이며 논리적 다의성을 보일 경우, Pinker (1989), Levin and Rappaport (1995), Reinhart (2002, to appear) 등에서는 어휘규칙으로 설명한다고 하나, 결국 둘 이상의 의미를 흔히 sink<sub>1</sub>과 sink<sub>2</sub>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열식 의미기술 방식은 두 의미 사이의 긴밀한 의미상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왜 의미의 차이가 통사적 구문의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줄 수 없었다. Pustejovsky (1995: 192)는 다의적인 두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두 의미가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생성적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한다. 즉 sink의 사건구조가 본래적으로 두 개의 하위사건을 갖는 복합사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건구조의 중점이 특정 하위사건에 부여되지 않고 미명세(under-specification)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begin{array}{l}
 (57) \quad \text{sink/affondare} \\
 \left[ \begin{array}{l}
 \text{EVENTSTR} = \left[ \begin{array}{l} \text{E1} = \text{e1: process} \\ \text{E2} = \text{e2: state} \\ \text{RESTR} = <\infty \end{array} \right] \\
 \text{ARGSTR} = \left[ \begin{array}{l} \text{ARG1} = \boxed{1} \left[ \begin{array}{l} \text{physobj} \\ \text{FORMAL} = \text{entity} \end{array} \right] \\ \text{ARG2} = \boxed{2} \left[ \begin{array}{l} \text{physobj} \\ \text{FORMAL} = \text{entit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 \begin{array}{l} \text{default-causative-lcp} \\ \text{FORMAL} = \text{sink\_result} (\text{e2}, \boxed{2}) \\ \text{AGENTIVE} = \text{sink\_act} (\text{e1}, \boxed{1}, \boxed{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사역교체를 하지 않고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이는 build의 의미구조에서는 중점값(HEAD-value)이 선행사건인 과정 e1에 있다(HEAD=e1)고 사건구조에 명세화 되어 있다. 반면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 sink의 의미구조에서는 사건구조의 중점값이 명세되어 있지 않다. 이때 미명세된 중점값은 문맥에 따라 선행사건 e1이나, 후행사건 e2로 해석된다. (56a)와 같이 사역적인 타동사의 경우 중점값이 e1

에 놓이게 되어 ‘배가 가라앉는 과정’이 부각되고, (56b)의 비사역적인 자동사의 경우 중점값이 결과 상태인 e2에 놓이게 되어 ‘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부각된다. 즉 동사의 모든 기본적 의미는 공통적인데, 사건구조속의 중점값에 대해서만 명세되어 있지 않다가, 실제 맥락에서 명세화된다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Pustejovsky (1995)의 설명은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의미구조에서 여러 의미가 생성되어 도출되는 방식을 취하므로, 기존의 나열식 설명보다, 생성되어 도출된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구조와 상적의미의 도출과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상적의미와 관련된 사건구조에서 제1 하위사건 e1은 sink\_act로 단순한 행위라는 점이다. (56a)와 같이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인 sink는 행위를 해서 그 결과 배가 가라 앉은 완성동사(accomplishment)의 의미이다. 즉 e1 하나만으로는 완성의 상적의미를 도출할 수는 없고, 행위를 나타내는 사건 e1과 배가 가라앉아 버린 그 결과상태 e2가 합쳐진 경우로 보아야만 완성의 상적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래야만 다음과 같은 Dowty (1979)의 완성동사의 논리구조와도 부합된다.<sup>12)</sup>

- (58) a. State : predicate'(x)  
 b. Activity : DO (x, [predicate'(x) or (x, y)])  
 c. Achievement : BECOME predicate'(x) or (x, y)  
 d. Accomplishment :  $\emptyset$  CAUSE  $\Psi$  (where  $\emptyset$  is normally  
 an activity verb and  $\Psi$  an achievement)

(58d) 완성동사의 논리구조 ‘ $\emptyset$  CAUSE  $\Psi$ ’는 추상운영소인 CAUSE를 사용하여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역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사역적인 원인이 되는 ‘ $\emptyset$ ’는 행위동사 구문이고, 그 결과인 ‘ $\Psi$ ’는 성취동사 구문이다. 즉 특질구조에서 두개의 하위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사역의 어휘적 개념유형(default causative lcp)이듯이, 사역적인 원인이 되는 예비행위는 제1 사건구조 e1이 나타내는 행위동사의 사건구조 sink\_act (e1, x, y)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태는 제2 사건구조 e2가 나타내는 성취의 사건구조 sink\_

12) 상태동사(State)의 논리구조 ‘predicate'(x)’는 논항 x가 predicate가 나타내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행위동사(Activity)의 논리구조 ‘DO (x, [predicate'(x) or (x, y)])’는 추상운영소인 DO를 사용하여, 1항 술어의 경우 논항 x가, 2항술어의 경우 논항 x가 논항 y에게 predicate가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성취동사(Achievement)의 논리구조 ‘BECOME predicate'(x) or (x, y)’는 추상운영소인 BECOME를 사용하여, 1항술어의 경우 논항 x가, 2항술어의 경우 논항 x가 논항 y로 predicate가 나타내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result (e2, y)가 되어야 한다.

다음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인 경우에 수동문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 (59) a. The enemy sank the boat.  
 b. The boat sank (suddenly/\*by the enemy).  
 b. The boat was sunk to win the war.

Pustejovsky (1995)의 설명대로 동사 sink의 사건구조가 본래적으로 두 개의 하위사건을 갖는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동사의 모든 기본적 의미는 공통적이라면, (56a)와 같이 사역적인 타동사 구문의 경우 중점값이 e1에 놓이게 되어 ‘배가 가라앉은 과정’이 부각되고 결과 상태인 e2는 부각되지만 않았지, 의미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6b)와 같은 비사역적인 자동사 구문의 경우 중점값이 결과 상태인 e2에 놓이게 되어 ‘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부각되고, 그 배경 의미로 적들이 배를 가라 앉힌 행위사건 e1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59c)와 같은 수동문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는 (59b)의 자동사 구문은 어떤 행위자에 의해 배가 가라앉은 경우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해서 배가 가라앉은 특정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사구 suddenly, by itself 등과 같이 쓰이지 특정 행위자하고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59c)와 같은 수동문은 행위자가 생략되어 명시적인 논항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암시적인 논항으로 존재하므로<sup>13)</sup> 이러한 의미는 (59b)의 자동사 구문의 의미보다는 (59c)의 수동문 의미에 더 가깝다.

이를 종합하면 타동사로 쓰인 경우는 두 개의 하위사건으로 구성된 복합사건 e1+e2으로 보아야 하고, 자동사로 쓰인 경우는 결과의 하위사건 e2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사역교체현상은 중점값의 미명세로 하위사건인 e1, e2간

13) 수동문에서는 행위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치사구로 표현할 수 있고, 충칭적이 아닌 존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인 차이를 통사적으로도 엿 볼 수 있다.

(i) a. \*Your book sells well to make money.  
 b. The boat was sunk to collect money.

(ia)처럼 중간동사 구문은 의미적으로 행위자가 암시는 되어 있지만, 통사적으로 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통제 해 줄 수는 없다. 즉 통사적으로 처음부터 명시적인 행위자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ib)처럼 수동문은 행위자가 명시적인 논항(overt argument)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암시적인 논항(implicit argument)으로 존재한다.

의 교체가 아니라, 복합사건 전체와 부분사건 e2간의 교체로, 원인 미명세에 의한 사건구조 미명세로 보아야 한다.<sup>14)</sup>

다음과 같은 사역교체동사의 경우를 사건구조 미명세의 입장에서 다시 보자.

- (60) a. John(The wind/The key) *opened* the door. ↔  
           The door *opened*.  
       b. Sally kept tugging on the door until it finally *opened*.  
       c. John(\*the wind/\*the hand)opened the jar. ↔  
           \*The jar opened.  
       d. The fruit trees *blossomed*. ↔  
           Early summer heat(\*The farmer/\*the new fertilizer)  
           *blossomed* the fruit trees across the valley.

(60a)의 동사 *open* 등은 기본적으로는 사역적인 타동사이나, 사역교체가 가능한 원인 미명세 동사로 일단 어휘적으로 의미가 행위사건 e1과 결과의 상태변화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 Eo(e1+e2)를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상태변화의 원인이 외재적인지 내재적인지 명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구조의 중점도 전체사건 Eo(e1+e2)와 결과의 하위사건 e2 중 어느 것으로도 명세화 되어 있지 않은 미명세 사건구조 Eo(e1+e2)/e2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역적인 타동사가 기본의미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전체사건 Eo(e1+e2)에 윤곽(profile)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딕체로 표시하여 구별한다. 따라서 외재적 원인에 의해 상태변화 하는 사역적인 타동사의 용법과 내재적 원인에 의해 상태변화 하는 비사역적인 자동사의 용법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60b)의 경우 외재적 원인인 행위자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데,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행위자가 사건에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는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미가 달라 다의적이라고 분석해야만 했던 (60c)의 경우도 행위자가 반드시 포함된 경우로 적정포함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다의적으로 보지 않고 어휘적으로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경우인데 사건구조가 명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

14) 익명의 심사자께서 중점값이 잘못 부여되거나 설정된 경우를 어떻게 filter out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언어습득의 문제로 동사의 의미구조를 잘못 알고 중점값도 잘못 설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Pinker (1989)에서 모국어 습득인 L1 언어습득의 경우 어린이가 모국어 화자에서 이런 오류를 많이 엿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점점 성인이되어 가면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오류수정을 하면서 올바른 사건구조 및 중점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어 습득의 경우에도 사건구조의 중점값을 잘못 설정한 경우영어와 모국어사이의 중간언어로 오류수정을 해 나가면서 점점 완벽한 영어에 가까운 언어능력을 습득해 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조건을 포함하여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생성되어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억지로 1항 술어를 기본으로 보고, 2항 술어의 타동사로 사역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휘 의미상 기본적으로 상태변화의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합사건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실제 맥락에서 명세화되어 사역적인 타동사로도, 비사역적인 자동사로도 표현된다는 방식이다. 즉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의미구조에서 여러 의미가 맥락에 따라 생성되어 도출되는 방식을 취하므로, 기존의 어휘규칙이나 나열식 설명보다, 생성되어 도출된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60d)의 동사 *blossom*도 기본적으로는 내재적 원인에 의해 상태변화 하는 비사역적인 자동사이나,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경우 사역적인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어휘적으로 의미가 행위사건 *e1*과 상태변화 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  $Eo(e1+e2)$ 를 지닌 동사로 분석한다. 사건구조의 중점은 전체사건  $Eo(e1+e2)$ 와 결과의 하위사건 *e2* 중 어느 것으로도 명세화되어 있지 않은 미명세 사건구조  $Eo(e1+e2)/e2$ 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사역적인 자동사가 기본의미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상태변화 사건 *e2*에 윤곽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딕체로 표시하여 구별한다.<sup>15)</sup> 따라서 비사역적인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직접원인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건구조인 *e2*가 윤곽적으로 부각된 경우이므로 직접원인조건 (55b)에 따라 행위자나 도구 등은 불가능하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건 등이 가능함으로 ‘*x is specified such as natural force or event*’라는 조건이 사건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을 포함한 사건구조 미명세원리에 의한 대안은 어휘규칙처럼 사역적인 타동사에서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파생시키거나, 반대로 비사역적인 자동사에서 사역적인 타동사로 파생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이미 어휘 의미 속에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미명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여 문맥에 따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여러 의미가 생성되어 도출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Pinker (1989)나 Reinhart (2002, *to appear*)의 어휘규칙이나, 기존의 나열식 설명보다, 생성되어 도출된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Pustejovsky (1995)처럼 하위사건구조

15) 익명의 심자가는 자동사 *run*의 경우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동사 *run*도 자동사가 기본이나 다음처럼 사역적인 타동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사 의미가 기본인 미명세 복합사건구조  $Eo(e1+e2)/e2$ 로 분석하고자 한다.

- i) a. They ran *the bear* up a tree.
- b. He ran some *hot water* into bowel.
- c. The Democrats ran *Bill* for congress.
- d. She ran a *lawn mower*.

e1과 e2사이의 중점값에 대한 미명세가 아니라, 복합사건구조 전체  $Eo(e1+e2)$ 와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e2와의 관계에서 미명세원리를 취함으로 Pustejovsky (1995)의 상적의미의 도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또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도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두 의미가 복합사건구조로 다 포괄되어 있어서 문맥에 따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으로 생성되어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reak, open처럼 사역적인 타동사가 기본의미인 동사에 대한 직관적인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또 기본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파생 도출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휘 의미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생성 도출되는 과정을 택함으로 다의적인 동사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있다. 또 복합사건구조 내의 윤곽부여로 사역적인 타동사가 기본인 동사와 비사역적인 자동사가 기본인 동사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Pinker (1989)를 중심으로 사역교체현상에 대해 어휘규칙과 협의의 동사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규칙은 모든 의미적, 화용적 요소를 다 명시적으로 의미구조에 대한 제약으로 기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부담은 너무 큰 문제점이 있었다. 또 어휘규칙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어휘부에서는 별도로 사역적 타동사 의미의 open1, 자동사 의미의 open2 등과 같이 나열식으로 적어 놓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를 중심으로 1항 술어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사역교체를 하는 동사를 모두 대상논항 하나만을 택하는 1항 술어로 보고 문맥적으로 직접원인 조건과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즉 어휘규칙의 문제점과 다의적으로 보아야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break, open 등을 기본적으로 1항 술어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점과, 문맥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여도 또 마찬가지로 사역화 과정을 가정해야 함으로 어휘규칙과 비슷한 부담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복합사건구조와 미명세원리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즉 어휘규칙처럼 사역적인 타동사에서 비사역적인 자동사로 파생시키거나, 반대로 비사역적인 자동사에서 사역적인 타동사로 파생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이미 어휘 의미 속에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미명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여 문맥에 따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에 따라 여러 의미가 생성되어 도출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을 포함한 사건구조 미명세원리에 의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Pinker (1989)나 Reinhart (2002, to appear)의 어휘규칙이나, 기존의 나열식 설명보다, 생성되어 도출된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Pustejovsky (1995)처럼 하위사건구조 e1과 e2사이의 중점값에 대한 미명세가 아니라, 복합사건구조 전체 Eo(e1+e2)와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e2와의 관계에서 미명세원리를 취함으로 Pustejovsky (1995)의 상적의미의 도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1)처럼 비사역적인 자동사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도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두 의미가 복합사건구조로 다 포괄되어 있어서 문맥에 따라 직접원인조건과 적정포함조건으로 생성되어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reak, open처럼 사역적인 타동사가 기본의미인 동사에 대한 직관적인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넷째 기본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파생 도출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휘 의미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생성 도출되는 과정을 택함으로 다의적인 동사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있다. 다섯째 복합사건구조내의 윤곽부여로 사역적인 타동사가 기본인 동사와 비사역적인 자동사가 기본인 동사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Atkins, B. T. S. and B. Levin. (1995). Building on a Corpus: A Linguistic and Lexicographical Look at Some Near-synonym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8, 85-114.
- Coppock, Elizabeth. (2009). *The Log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Baker's Paradox*, Ph. D. thesis, Stanford University.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Horvath, Julia and Tal Siloni. (to appear). Causatives across Component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 Levin, B. (2009). "Further explorations of the landscape of causation: Comments on Alexiadou and Anagnostopoulou",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Greek Syntax and Semantic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9,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MIT, Cambridge, MA, 239-266.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26, MIT Press.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2011). “Conceptual Categories and Linguistic Categories”, Handout from Course LING 7800-009 LSA Linguistic Institute, July 2011,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McCawley, James D. (1978). “Conversational Implicature and the Lexic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245-59.
- Pinker, Steven.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Cambridge.
- Rappaport Hovav, M. and B. Levin. (2011). “Lexicon Uniformity and the causative alternation”, in M. Everaert, M. Marelj, and T. Siloni, eds., *The Theta System: Argument Structure at the Interfa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 Reinhart, Tanya. (2002). “The Theta System—An Overview”, *Theoretical Linguistics* 28, 229-290.
- Reinhart, Tanya. (to appear). “The Theta System: Unaccusative and Experiencer Derivations”, in M. Everaert, M. Marelj, E. Reuland, and T. Siloni (eds.), *Concepts, Syntax, and Their Interface*. Cambridge,: MIT Press. (Text revised for publication by T. Siloni.)
- Wright, Sandra K. (2001). *Internally Caused and Externally Caused Change of State Verb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Wright, Sandra K. (2002). Transitivity and change of state verbs. *BLS* 28, 339-350.

김경학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khkim@suwon.ac.kr

접수일자 : 2012. 3. 12

수정본 접수 : 2012. 4. 11

게재결정 : 2012. 4. 16